

##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7:1-9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광야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예수님과 동생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요 7:3-4)**

‘지금까지 갈릴리 시골에 묻혀 지냈는데 형님 이제 명절이 되어 많이 사람들이 모일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을 한번 중앙무대에서 빛을 낼 기회가 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 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 7:5)**

왜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포 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당신 행하는 모든 일을 유대에 가서도 행해 보세요’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권능자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왜 믿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결국 **‘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귀신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귀신의 믿음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유대에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라는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내 때’란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믿음을 제쳐놓은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진

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으로 살기 위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칠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로만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도 예수님의 동생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십자가의 고난의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병 낫는다는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인정하는 것이 구원 받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일 5:4)**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방향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쏟아 부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으로 교육하지 않고 사람의 기분에 맞추고 사람 모으는데만 관심이 있으면 주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올바르게 행하는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때에는 똑 같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예배 드릴때도 똑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의 믿음과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 같이 예배 드리고 똑 같

이 찬송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 가야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 사도 즉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서에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약 2:20)**

야고보 사도는 무엇인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 신앙은 허탄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활동하는 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용하면 더 커지게 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적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옛날에 잘 믿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든 아니니라" (약 2:24)**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공통점은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 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의 결단을 실천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1-22)**

여기서 행함은 우리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결단을 내리지 않아서 우상을 섬

기고 음란한 짓이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서 믿음을 실천할 때까지 안 도와줍니다. 그것은 성도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타협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양다리 정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참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참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 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8-39)**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물 침례를 받지만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한잔하고 부도덕한 일도 합니다. 좀처럼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뛰어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엇보다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건강할 때, 병들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중에는 합쳐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채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좋지 않은 일, 어려움을 당할때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배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나눔의 시간

1. 참된 믿음의 기초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각자 정직하게 내가 이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 참된 믿음은 성령을 받은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배짱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